

# 한·중 기술협력의 물꼬를 트다

글 | 박균명 \_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국기술협력센터장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R&D 기지로 변모’ 하고 있는 중국의 약진이 무섭다. 우리 나라가 일본을 따라잡지 못하고 중국을 따돌리지 못하면 이들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반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의 길을 모색하고 일본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의 기술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것을 꼭 맞게 매치메이킹시켜주는 것, 현지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진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생기원 중국기술협력센터의 역할이다.

## 생기원, 한·중 기술협력 교류 발판 마련

산업화가 한창이던 1980년대 ‘생산기술’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일본의 섬세한 생산기술에 밀려 미국 제품의 경쟁력이 주춤하던 시절이었다. 도요타의 신선한 생산방식이 GM이나 포드 자동차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였던 것이 그 한 예다.

새로운 생산기술은 세계적인 관심거리로 떠오르며 우리나라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됐다. 대기업들이 자체 생산기술연구소를 만들고,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과 같은 실용화 연구기관이 탄생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 최대 생산공장이라 불리며 생산역량 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제는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떨어지던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려 품질 면에서도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지금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제품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진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생산기술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생기원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미리 파악하고 일찍부터 중국에 진출, 현지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밀착 지원해 왔다. 2006년에



5차 진출기업 중간관리자 실무세미나



6차 진출기업 중간관리자 실무세미나







MOU체결



제1차 중점기술전문가학술교류

년도 채 되지 않아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굵직한 결실을 맺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기술협력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4가지로 대별된다. K·GIN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한·중산업기술 네트워크 구축 사업’, ‘한중산업기술 DB확대 및 현장실무 로드맵 구축 사업’, ‘상용화 기술이전 거래 지원 사업’, 그리고 ‘진출기업 기술력 제고 사업’이 그것이다. 4가지 사업 모두 중국 현지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다.

‘한·중산업기술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정부기관, 주요 연구기관, 대학, 주요 기업체 등 중국 주요 기관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갖추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실제로 센터는 베이징의 중국기계연구원, 톈진의 중국자동차센터, 선양의 자동차연구소, 다롄의 다롄이공대학, 창춘의 지린대학교, 하얼빈의 하얼빈이공대학, 시안의 광학정밀기계연구소, 청두의 광전기술연구소, 허페이의 허페이저능기계연구소, 상하이의 상하이교통대학 등 500여 개 기관과 굳건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또, 분말, 나노, 금형, 기계 등 각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DB를 확보, 상시적인 연락체제를 구축한 것도 큰 자산이 됐다. 센터는 이들 중국 현지 전문가들과 우리 전문가들의 교류를 주선하는 한편, 학술교류회 등을 통해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한·중산업기술 DB확대 및 현장실무 로드맵 구축 사업’은 중국 내 산업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신화통신사 등 중국의 주요 DB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각종 정보

를 수집하고, 중국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중국의 산업발전 현황 및 통계 정보, 경제현황, 정책기획 등의 보고서를 수집하고 있다. 센터는 이를 적극 활용해 중국에 진출·투자하고자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에 맞춤형 정보를 적시 제공하는 일에도 힘써 왔다.

이렇게 구축된 DB 및 네트워크를 활용, 우리 기업들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도 센터의 주업무 가운데 하나다. 무엇보다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정보통신, 금형 등 각 분야의 정보수집을 통해 양국간 공동 연구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적극적이다.

최근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 중국의 선양자동차연구소와 생기원이 레이저 가공기술 및 설비개발, 프레스 성형기술, 판재로 성형기술 등의 공동연구를 위해 실무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필터프레스 산업 등 각 분야의 공동연구 성사 징후가 뚜렷해 기 때문이다.

‘상용화 기술 이전 및 거래 지원 사업’은 중국 실정에 맞는 기술 설명회 및 전시회 개최를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지난 2월(주)그린텍이 중국 하얼빈정부 산하 연구기관에 대기 및 수질오염 측량설비 제조기술을 이전하는 설명회를 개최, 기술이전 추진을 협의하고 있는 것도 센터의 가교 역할에 힘입은 바 크다. 중국은 그린텍의 대기 및 수질오염 측량설비 기술을 활용해 송화강 일대의 환경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진출기업 기술력 제고 사업’은 생기원 본연의 임무와 가장 잘 부합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생기원이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것처럼 중국기술협력센터는 중국 현지에서 진출한 우리



중점기술전문가 위촉식

중소기업들의 애로 기술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라면 간단하게 해결되었을 일도 낯선 땅에서는 의외로 고전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기술협력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문제를 온라인상에서 접수 받은 후, 해당 기술지도 전문가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글로벌 경쟁하에서 흔들림 없는 구심점 될 터

중국기술협력센터는 우리 나라와 중국의 기술 교류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는 지원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양국간 기술 교류의




한·중 산업기술협력워크숍

큰 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적극 추진중인 '한·중테크노마트' 개척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센터는 이 행사에서 한국과 중국의 주요 기술들을 전시하고, 양국 기업들의 기술 이전 및 거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기술 거래가 이루어진 기관과는 반드시 네트워크를 구축, 성과를 추적하여 지속적인 관리·지원에 힘쓰는다는 계획이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국제사회가 협력기조로 분위기를 바꾼 것이 국제협력의 변화라면 변화다. 지난세기말까지만 해도 블록 경제화 또는 무역장벽 등 지극히 제한적인 분위기에서 협소한 의미의 국제 교류만 이뤄졌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의 글로벌'이라는 개념이 점차 확산되면서 기술의 국제교류와 협력이 절실한 시대를 맞고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 국제 사회의 흐름을 알아야 우리 기술의 현위치를 알 수 있는 법이다. 그래야 부족한 부분, 더 살려야 할 부분을 알아내 약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의 국제협력은 단순한 무역, 상품거래 분야를 뛰어넘어 각 권역별 기술특성화,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 등 보호와 개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생기원 중국기술협력센터는 앞으로도 이러한 세계적인 트렌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국제협력 전략을 세워 힘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글쓰는 홍익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후 한양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홍익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생기원 금형기술개발부 부장, 금형기술종합지원센터 설립 초대 소장,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계공학부 겸임교수, 한국금형기술사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www.kitech.re.kr)은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실용화 위주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산업현장으로 이전하는 데 주력해 온 종합연구기관이다.

1989년 설립된 후 밀착지원을 목표로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연구센터를 설치, 현재 천안 본원 외에 인천, 광주, 부산 등 전국 12곳에 연구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3천 여 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이중 71%의 실용화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부출연(연) 가운데 가장 높은 실용화 비율이다. 경영혁신 성과도 두드러져, 매년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최근 3년 연속 최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생기원 4대 기능은 실용화 기술개발, 개발 기술의 중소기업 지원, 지역 특화기술 개발 선도, 국가 전략기술 개발 사업 기획·관리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생산시스템기술, 생산기반기술, 부품·소재기술 분야다.